

코믹하고 호기심 자극... 안방극장 사로잡았다

KBS 2TV '연모' 국내 시청률 10% 넷플릭스 비영어 부문 4위에 올라
MBC '웃소매 붉은 끝동' 화제성 톱 20개국 OTT·방송 채널 공급 계약

'사극 풍년'이다. 로맨스와 허구의 설정을 섞은 퓨전 장르부터 역사적 사실을 담은 대하드라마까지 다양한 작품이 잇따라 시청자를 만난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이 낯설지만 궁중 정치 등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이야기에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내외 인기를 높이면서 내년에도 사극이 계속 제작될 전망이다.

●'연모'부터 '웃소매 붉은 끝동'까지 인기 남장여자 왕 박은빈과 신하인 료운의 로맨스를 담은 KBS 2TV '연모'는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도 공개하면서 'K(케이) 드라마'로 발돋움했다. 24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연모'는 글로벌 '비영어 TV' 부문 톱 10의 4위에 올랐다.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1564만여 시청 시간을 기록했다. 국내 시청률도 10%(닐슨코리아)를 넘겼다. 12일 첫 방송한 MBC '웃소매 붉은 끝동'은 4회 만에 시청률을 7.5%까지 끌어올렸다. 화제성조사회사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의 11월 3주차(15~21일) 드라마 화제성 1위에도 올랐다. 조선 정조 역 이준호와 궁녀 이세영이 전지현, 고현정 등 톱스타들의 주막극과 경쟁해 얻은 성과라 더욱 눈길을 끈다. 조선시대 어사



KBS 2TV '연모'(왼쪽 사진), MBC '웃소매 붉은 끝동' 등 사극 드라마들이 국내외에서 인기를 높이고 있다. 사진제공 | MBC-KBS

옥택연과 '이혼녀' 김혜윤의 수사극을 담은 tvN '어서와 조이'도 코믹한 매력을 녹여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BS 1TV는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12월11일부터 방영한다. 주상욱, 김영철 등이 주연해 조선 3대 임금인 태종의 일생을 담는다. KBS는 '용의 눈물' '대조영' '태조 왕건' 등 대하드라마를 내놨지만 막대한 제작비 등을 이유로 2016년 '장영실' 이후 5년간 제작을 멈췄다. 시청자들의 제작 요청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올해 재개했다. 방송가에서

'태종 이방원'의 시청률 결과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대하사극 제작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본다.

●해외 호기심에 선 판매도 '거뜰' 퓨전 사극은 젊은 왕과 궁녀 등 신분 차이를 극복해가는 이야기를 통해 청춘 로맨스의 새로운 무대로 주목 받고 있다. MBC는 '웃소매 붉은 끝동'이 방영 이전에 일본, 대만, 미국 등 20여개국 OTT 및 방송 채널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극에 대한 해외 시청자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원동력으로 꼽았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20대 女배우 3인방 주연으로 폭풍성장

김새론·심달기·조이현 줄줄이 신작 공개

무서운 '성장세'다. 20대에 막 발을 들인 배우 김새론(21), 심달기(22), 조이현(22)이 안방극장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톱스타들이 즐비한 방송가에서 독특한 개성을 발판삼아 주연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김새론은 최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단막극 등 다양한 장르와 포맷에 도전하고 있다. 올해 여름 공포 소재의 카카오톡 '우수무당 기둥심'에 이어 12월3일 KBS 2TV 사극 '드라마 스페셜 2021-그녀들'을 내놓는다. '원톱' 주연으로 나서면서 2010년 영화 '아저씨'의 아역 이미지를 지우는 데 힘쓰고 있다. 나이에 비해 풍부한 경험을 갖춰 제작진도 반긴다.

심달기는 20일 공개된 카카오톡 오리지널 시리즈 '그림자미녀'로 첫 주연을 맡았다. 극중 실재로는 '왕따'이지만, 사진을 조작해 SNS 스타가 되는 고교생 지니를 연기한다. 광기 어린 표정으로 기괴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장면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이국적인 외모로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는 그는 올해 뉴욕아시아 영화제 등에서 주목 받은 영화 '최선의 삶'을 통해 영화계에서는 일찌감치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다.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에서 인연으로 등장한 조이현도 24일 첫 방송한 KBS 2TV '학교2021'로 20대 신인들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주연 자리를 꿰찼다. 내년 1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도 선보인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그라미가 BTS 퇴짜”... 본상 불발에 비난 쏟아져

외신 “히트곡 ‘버터’ 후보서 배제” SNS선 #사기+그라미 태그 반발 2년 연속 베스트 그룹 후보 올라 수상팬 美3대 음악상 그랜드슬램

“그라미가 BTS의 ‘버터’에 퇴짜를 놔다!”

‘흑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최고 권위 음악상으로 불리는 그라미 어워즈에 2년 연속 후보로 올랐지만 당초 기대했던 본상 부문에는 결국 포함되지 못했다.

그라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아카데미는 24일 오전(한국시간) 내년 2월 열리는 제64회 시상식 후보를 발표했다. 방탄소년단은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에도 해당 부문에 올랐지만 고배를 마셨



전 세계를 녹인 ‘버터’로 그라미어워즈에서 ‘올해의 레코드’ 후보에 오를 수 있다는 외신의 전망이 잇따라 나왔지만, 결국 방탄소년단의 이름은 없었다. 사진제공 | 빅히트 뮤직

다. 앞서 방탄소년단이 올해 ‘버터’로 전 세계를 녹이며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통상 10주 정상을 차지하는 등 메가 히트를 친 만큼 그라미 4대 본상 중 하나인 ‘올해의 레코드’ 후보에 오를 것이

라는 외신들의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어긋났다.

이에 AP통신은 “놀라운 것은 BTS의 ‘버터’가 퇴짜를 맞았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버터’가 올해 여름 메가 히트곡이지만, 그라미는 단 1개 부문 후보

에만 BTS를 올려놨다”고 평가했다. LA타임스도 “글로벌 팝 돌풍을 일으킨 BTS가 블랙버스터급 한 해를 보였음에도 1개 부문 후보로만 지명됐다”며 “‘버터’가 빌보드 ‘핫 100’에서 10주 정상에 올랐지만, ‘올해의 레코드’와 ‘올해의 노래’ 부문에서 배제됐다”고 썼다. USA투데이는 “‘버터’는 더없이 행복한 즐거움을 선사했고, 음악 플랫폼 스포터파이의 글로벌 차트 기록도 갱신 여음 노래”라며 “단 하나의 후보 지명만으로 되는가”라고 물었다.

팬들도 트위터 등 SNS를 통해 #Scammys(Scam·사기와 그라미의 합성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그라미 어워즈를 비난했다. 그럼에도 수상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는 그라미 팝 장르 세부 시상 분야 중 하나로 2012년 신설됐다. 지난해에는 레이디 가가·아리아나 그란데에게 트로피가 돌아갔다. 방탄소년단이 수상하면 미국 3대 음악상(아메리칸·빌보드 뮤직 어워즈)을 석권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이정재 기자 a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블랙핑크 리사 코로나19 확진 판정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24일 “리사가 오늘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YG는 “제니, 지수, 로제 등 3명의 멤버는 아직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리사의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통보받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현재 세 멤버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YG는 “관련한 내용을 관계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보건당국 지침 이상 수준 강도 높은 선제적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재, 29일 개막 ‘고담 어워즈’에 참석

배우 이정재가 2021 고담 어워즈에 참석한다. 24일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이정재가 29일 열리는 2021 고담 어워즈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정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으로 아웃스탠딩 퍼포먼스 인 어뉴 시리즈(Outstanding Performance in a New Series·신작 시리즈 연기상) 부문 후보에 올랐다. 그는 ‘더 굿 로드버드’의 에단 호크, ‘퀸스갬빗’의 안야 테일러 조이 등과 함께 경쟁한다. 미국 독립영화 지원단체 IFP가 지원하는 고담 어워즈는 이후 미국 시상식의 결과를 예측하는 무대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옥탑방의 문제아들’ 대선 후보 특집 방영

대선 후보들이 예능프로그램에 잇달아 나오고 있다. 24일 KBS 2TV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 제작진은 “30일과 12월7일 방영하는 ‘대선 후보 특집’ 1·2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례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마다 친근한 매력과 솔직한 입담을 뽐낼 예정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SBS 예능프로그램 ‘워맨스가 필요해’에 출연한다. 그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부이자 며느리의 일상을 공개한다. 심 후보의 촬영 분량은 12월 중 방영된다.

내달 개봉 ‘태일이’ 박스오피스 3위 질주

청년 전태일 삶 그린 애니메이션 권해효·진선규 등 목소리 연기

애니메이션 ‘태일이’가 개봉 전 박스오피스 3위에 올라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계를 보면 ‘태일이’(감독 홍준표)는 23일 전국 170개 스크린에서 1만8600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1위 ‘장르만 로맨스’의 4286개 스크린 3만여명, 2위 ‘이터널스’의 3103개 스크린 2만600여명에 비춰 상당한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태일이’의 개봉일은 12월1일. 이를 앞지

러 앞두고 얻은 수치는 단체관람의 힘에서 나온다. ‘태일이’의 제작사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는 24일 “시민단체와 교육계,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 등이 단체관람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교육청 등이 서울 광화문 씨네큐브에서 ‘서울교육공동체 단체관람’을 진행하기도 했다.

‘태일이’는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의 재단사인 22살 청년 전태일이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외치며 자신의 몸을 태워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세상에 알린 이야기를 어린이 눈높이로 담아낸 최호철 작가의 만화가 원작이다. 각 단체의 자발적인 단체관람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살다 간 청년 노동자의 삶,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려는 이들의 발걸음이 라고 제작진은 말한다. 이에 배우들도 함께했다. 전태일 역 장동윤과 어머니 이소선 여자 역 염혜란을 비롯해 권해효, 진선규, 박철민, 태인호 등



다시 태어난 ‘청년 태일이’. 전태일 열사의 생을 그린 애니메이션을 교육, 노동, 시민단체 등에서 잇달아 단체관람하며 흥행을 불을 지피고 있다. 사진제공 | 리틀빅픽처스

그동안 인기를 모았던 배우들이 목소리로 연기했다. 심 대표는 “이들이 통상적인 영화 출연료보다 적은 적은 개런티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일반 관객 등 1970명의 ‘제작위원회’와 포털 카카오의 기부플랫폼 ‘같이가치’를 통해 소액의 제작비를 후원한 누리꾼 등 2만 여명도 엔딩크레딧에 이름을 올렸다. 심 대표는 “이들이 마음속 같은 역할로 주변의 관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일이’는 개봉 시기가 겨울방학 시즌과 맞물려 더 폭넓은 관객의 시선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개봉한 ‘유체이탈자’와 ‘연애 빠진 로맨스’, 상영 중인 ‘장르만 로맨스’, ‘강릉’ 등과 함께 실시간 예매율 상위권에도 올라 한국영화의 흥행세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